

## 6/11(토) 시편 42-45편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 같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42:3,10, 44:13참고)”

시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대꾸할 수 없을 만큼  
변명과 미화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였습니다(42:3, 43:2, 44:7-16).  
시인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갈급하지만 주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임재와 손길을 느낄 수 없는 시인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42:1-2,9, 43:2, 44:23-24/ 42:5,11,43:5).

시인은 <성전>에서의 복된 예배를 기억했습니다.  
<성전에 올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흡뻑 해갈할 수 있다면! >  
그러나 시인은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42:2, 43:3-4).

이스라엘은 포로기, 신구약 중간기 등  
여러 차례 군사적인 실패와 압제를 경험했습니다(44편).  
국가적인 재난,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으로도 괴로운데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길까지 막혔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42:5,11,43:5)”

시인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시인은 언젠가의 은혜로운 시절을 추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습니다.

나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까?

- ❶ 과거 은혜가 충만했던 시절과 상황들을 추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❷ <영적 갈급함>의 이유를 다른 무언가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2권 (42-72편)**

편	유형	편	유형
42	개인 탄식시	58	공동체 탄식시
43	개인 탄식시	59	개인 탄식시
44	공동체 탄식시	60	공동체 탄식시
45	왕조시편	61	개인 탄식시
46	시온의 노래	62	신뢰의 노래
47	찬양시	63	신뢰의 노래(개인 탄식시)
48	시온의 노래	64	개인 탄식시
49	지혜시편	65	공동체 감사시편(찬양시)
50	계약갱신 제의문	66	찬양시, 개인 감사시편
51	개인 탄식시(참회)	67	감사의 공동체 노래(찬양시)
52	개인 탄식시(흔합)	68	시온 제의기도문
53	개인 탄식시(=14)	69	개인 탄식시
54	개인 탄식시	70	개인 탄식시(=40:13-17)
55	개인 탄식시	71	개인 탄식시
56	개인 탄식시	72	왕조시편
57	개인 탄식시		